

지역 소식통

고창군,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속유지

고창군이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정책을 당분간 이어간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요금의 60%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감면은 고창군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 심사 후 부과액에서 일괄 감면한다. 단, 신규 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야 하며, 일반용과 대량탕용이 해당된다.

군은 올 한해 동안 상수도요금 60%를 감면할 경우 약 1억 2000만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발전과 물가 안정에 상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2년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부안군이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드높이고 부안군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2022년 부안군민대상'을 선발하고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선발분야는 효열, 산업, 공익, 교육, 문화, 체육, 애환, 명예군민 8개 분야로 각 분야별 1명씩을 선발한다.

부안군민대상은 1979년에 군민의 장으로 최초 시행돼 '뜨거운 사랑'을 거쳐 현재, '부안군민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10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추천서 접수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4주간)로 수상후보자는 각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부안군청 관공서장 및 읍면장이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

추천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미선발 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코로나 원스톱 진료체계 구축

정읍시, 검사·진료·처방 일괄 수행 진료센터 24개소 지정 운영

정읍시가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원스톱 진료 기관 운영 등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대응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7월 한 달간(1일~26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23명으로 지난 6월 확진자 수 245명과 비교해 4배가 넘는 수치다. 거리두기 없는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급속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기존 기능별로 분산됐던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명칭을 일원화한 것이다. 시는 현재까지 24개소를 지정했으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참여할 신규 병·의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나갈 계획이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 등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스톱 진료 기관이 많아질수록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 또는 정읍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재택 격리 중 증상이 있을 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 방문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필요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빠르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확대·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천사 히어로즈와 팬백나무 숲에 LED로 꾸민 야경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여름 밤, 모험의 세계로'

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야간 경관조명 연출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천사 히어로즈와 팬백나무 숲에 LED로 꾸민 야경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시는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4천만원(도비)을 들여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어벤져스와 공룡 캐릭터 유등 16점을 설치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캐릭터 유등을 전시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표 관광지 홍보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취지다. 유등은 7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2달간 전시 운영되며, 점등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천사 히어로즈 주변에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에 인기 있는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토르, 헐크 등 어벤져스 유등이 설치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또 문화광장 외곽 팬백나무 숲에는 공룡 캐릭터와 공룡알 유등 10점을 설치,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한다. 시는 유등 전시 기간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시 안전사고 원인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캐릭터의 유등을 설치했다"며 "한여름 밤 감성과 낭만이 가득한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바지락 신규채취 어구 개발해 고령화 대응 나선다

고창군, 곰소만 바지락 해양환경 조사용역 착수

고창군이 바지락 채취 인력 고령화 해결을 위해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사용법령 개정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하천어촌회의실에서 '곰소만 패류(바지락) 해양환경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현행 바지락 채취는 호미 등을 이용해 도수로만 채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고창군은 바지락 어가의 고령화

로 도수 채취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신규 채취어구 등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용역의 주요과업은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사용에 따른 바지락 양식어장 해양환경 및 어업실태 조사 △바지락 양식어장의 자원량 조사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표준 구성도 및 조업도 식도 제시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용역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수산학협력분부가 용역기관으로 선정돼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착수보고회를 통해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갯벌연구소, 바지락 양식 어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대책방안이 논의됐다. 고창군은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법령 개정시 어업인고령화로 인한 패류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와 채취비용 절감 등 패류 양식어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시민참여 맞춤형 정책발굴 아이디어 접수

정읍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정책발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30일간 시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시민참여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이는 주민 실생활 편의 향상을 겨냥한 주민맞춤형 정책과 지역발전, 인구증가 및 정착유도 방안을 포함한 청년·인구 유입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정 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참여 열린 시정'이라는 민선 8기 시정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등 절차

를 거쳐 시 정책에 반영된다. 공모주제는 특별주제와 일반주제로 나뉜다. 특별주제는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읍역-정읍천 연계 핫플레 이스 조성'과 관련해 발전적으로 추가, 변경 또는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일반주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개선 또는 시행해야 할 정책이다. 응모 방법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정읍시 총정로 234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또는 팩스(063-539-6504)로 제출하거나 이메일(hobsang@korea.kr)로 전송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특별주제 분야에서 최우수 1명, 일반주제 분야에서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한다. 심사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월 중 정읍시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 스스로 우리 시의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이 된 열린 시정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부안군,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부안군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3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사업유형 :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은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총 2억원이며 부안군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생활권·경제권 확대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인프라확대, 공동체 문화복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마을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부안군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완료지구에 대한

내실있는 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리더 육성을 통한 핵심리더를 발굴하고, 사업완료 지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와 지역개발 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을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교육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마을활성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3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 역량강화사업) 공모 선정으로 마을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energy-saving campaigns. Title: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Methods for saving energy to cool the earth). List of 4 items: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Includes an image of a globe and a tree.